산업통상자원부 |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9. 12.(목) 11:00 < 9.13.(금) 조간 > 배포 2024. 9. 12.(목)

안전하면서 경쟁력 있는 반도체산업 발전에 민관이 힘모으기로

- 반도체산업 분야 고압가스 안전기준 고도화를 위한 산업부·가스안전공사·반도체산업협회·삼성전자·SK하이닉스 업무협약 체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반도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기준을 고도화하기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9월 12일(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고압가스 : 고압 상태의 가스로 기체 상태의 가스가 압축된 경우에는 1.0MPa(10기압) 이상, 가스가 액화된 경우에는 0.2MPa(2기압) 이상이면 고압가스에 해당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모노실란* 등 다양한 고압가스들이 사용되고 있고, 산업 특성상 신소재의 사용, 신기술 도입 등 기술혁신이 급격히 이루어짐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업계와의 간담회·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그 동안 지속적으로 현장 애로과제를 도출하고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규제혁신을 추진해 왔다.

* 모노실란(SiH_4) :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며 실리콘(Si) 절연막 등 형성시 사용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반도체산업 분야 고압가스 안전관리기준 고도화를 위한 민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업계에서는 제도 개선을 위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신기술 도입 등에 따른 고압가스 안전관리기준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안전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은 “현장 여건에 맞게 안전을 확보하면서 우리 반도체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안전확보와 산업발전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반도체산업 외 석유화학, 특수가스 등 산업 분야 업계와도 소통하여 가스안전관리기준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수소경제정책관 에너지안전과	책임자	과 장	황윤길 (044-203-3980)
		담당자	사무관	이용현 (044-203-398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 임 **업무협약 개요**

□ 개요

○ (**협약주체**) 산업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5개 기관

○ (**일시/장소**) ’24. 9. 12(목) 14 : 00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9층 세미나실 (분당구 판교 소재)

○ (**참석대상**) 약 15명 내외

- (**산업부/공사**)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 한국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 등
- (**반도체업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부사장 등

□ 업무협약 내용

○ **(공통)** 반도체용 고압가스 안전관리기준 고도화를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 **(정부, 공사)** 반도체산업 분야 고압가스 안전관리기준 합리화 방안 검토

○ **(업계)** 반도체용 고압가스 안전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기술정보 제공

□ 세부일정

시 간		세부내용	비 고
14:00 ~ 14:05	(5’)	회의 개회 및 인사말씀	
14:05 ~ 14:15	(10’)	업무협약식 - 협약서 서명, 기념사진 촬영	
14:15 ~ 14:40	(25’)	간담회 - 고압가스 규제개선 현황, 애로청취 등	반도체협회 가스안전공사 삼성, SK